

【2부】

한국 인문학 진흥정책의 큰 방향*

안 삼 현(서울대)

한·중·일 3국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추측되지만, 적어도 한국인은 원래 자연과의 합일 또는 조화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말의 개화기, 제국주의 시대, 미군정 시대, 6.25 전쟁, 군사정부의 개발독재 등을 거쳐오는 동안, 아쉽게도 이러한 전통이 퇴색하거나 단절되어 버리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는 이른바 서구의 합리주의라는 철학 하에, 작게는 신자유주의라는 국제적 시류 하에— 일견 무한경쟁과 배금주의 이외에는 아무런 전통적 가치도 더 이상 숭상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때에 인문학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국의 인문학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중에서도 서양학인 독문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인문학의 이러한 당면 과제를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인식을 복잡한 한국적 현재 상황 하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또 개인적 역량도 부족해서 심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껴왔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도다!

* 이 글은 필자가 국무총리실 산하 재단법인 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2004년 12월 3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 인문정책 포럼'에서 한국측 발제강연을 한 원고를 다소 수정·가필한 것임.

(Das Ewig-Weibliche
Zieht uns hinan.)¹⁾

독일인들도 어려워하는 이런 구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철학적 해석을 시도하면서도, 정작 어릴 때부터 익혀온 우리 동양 고전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그냥 무심히 지나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와 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懼 不亦君子乎?)²⁾

가까이 있는 동양의 진리는 별다른 성찰 없이 비껴가면서, 서양 학문의 수입에만 급급해 온 것이 저를 포함한 한국 서양학도의 일반적인 학문적 좌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괴테가 말하는 이른바 “자유로운 정신무역(freier geistiger Handelsverkehr)”³⁾의 현장에 내어놓을 만한 학문적 수출품은 전혀 생산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수입 일변도에 머물렀던 것이 한국 서양학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면, 서양의 지식 생산품은 일단 경원(敬遠)하든지, 아주 무시해 버린 채 동양적 진리의 탐구에만 몰두해 온 것이 어찌면 지금까지의 한국 동양학도들의 함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의 서양학도들도 동양학 쪽에서 수요와 요청이 없는 학문적 생산품을 자꾸 생산해 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국 인문학도들의 이런 딜레마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도기가 한시 바빠 지나가고 새로운 학문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한국의 인문학자라면 — 비록 서양문학을 전공한다 하더라도 — 그 전에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살아온 조선(祖先)들의 깨

1) 괴테: 『파우스트』 (제2부), 12110~12111행.

2) 공자: 『논어』, 學而篇.

3) 괴테: 『함부르크판 전집』 제12권, 364쪽(『세계문학』에 관한 괴테의 주요 언급).

달음을 먼저 배우고 익혔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길, 즉 증도혜(證道慧)와 교도혜(敎道慧)는 항상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니, 중생교화라는 실천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적정(寂靜)의 상태에 있는 것이며, 비록 깨달아 적정에 이르렀다 해도 항상 이타행(利他行)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과 실천은 서로 들고 남이 없이 항상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前之二道[證道慧及敎道慧] 恒不相離 動而常寂 寂而恒動 故無出入 動寂恒並 不滯一邊故⁴⁾)

신라의 원효대사는 7세기에 이미, 성취불법선(成就佛法禪)과 교화중생선(敎化衆生禪), 즉 청정한 마음이집이라는 득도와 이타행(利他行)이라는 실천은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 늘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초·중등교육에서는 이런 선조들의 위대한 가르침이 거의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화합을 귀히 여기고 거스름이 없음을 으뜸으로 삼는다.

(以和爲貴 無作爲宗)⁵⁾

와 같은 이웃나라의 주요 가치 체계에 대한 교육이나, 이웃나라 역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행해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정은 아마도 일본의 초·중등학교에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다같이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우리 동북아 3국의 인문학자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 우리 3국의 공통의 문화유산(예: 광개토태왕 비문)과 역사적 전거(典據)들(예: 史記, 삼국사기, 古史記)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본 지식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공동으로 전수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문학 교육 현장에서 이 정도의 동양적 교양이라도 존중된다면, 일체의 가치를 환금성(換金性)이란 잣대로만 재려고 드는 현재의 한국인 일

4) 원효: 『금강삼매경론』.

5) 聖德太子 憲法十七條, 第一條.

반의 그릇된 풍조도 저절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계몽주의 이래의 서구 사상과 문명에 대한 영합적 수입이란 한계를 벗어나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주적 안목도 뒤따라 생기게 되리라 봅니다.

요컨대, 앞으로의 한국 인문학은 “자연을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복된 삶의 귀의처로 바라보며, 대립과 승리보다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등의 동북아적 문화전통”⁶⁾을 살려나가면서, 한국인의 자리(自利)와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이타(利他)가 서로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양인의 자리가 인류 전체를 위한 보다 큰 이타와 어우러지는 동서양 화합의 신문명 시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 시대 서양의 편협한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럽·아메리카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근 서구 인문학자들의 깨달음과 우정 있는 다가옴에 대해 우리 동아시아 인문학자들이 의미 있는 화답을 하며 마주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서구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왕조의 쇠국정책 이래 군사독재 체제 하의 분단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불행한 역사적 과정들을 겪어 오는 동안 전래의 미풍양속과 문화적 전통의 단절을 겪은 나머지 최근에 문화민족 본연의 윤리 및 가치 체계를 잠시 잃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두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동쪽 상간의 피를 흘린 바로 그 지점에서 — 마치 난류와 한류가 서로 부딪히는 지점에 많은 어종이 번성하듯이 — 인류 보편의 새로운 인문학적 가치 체계가 꽃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다소 낙관적인 희망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의 인문학자들 중에서도 서양학자, 그 중에서도 제2외국어 관련 어문학자라는 한 주변인물에 불과한 저는 —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변수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 다음과 같이 저의

6) 유초하: 「동북아 역사·문화의 재인식 방안」, 69쪽, 실린 곳: 최송화 외: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법문사 2004, 57-80쪽.

단편적 생각들을 시간 관계상 몇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좌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심기 일전하여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재발굴하고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한은 물론이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골 등 동아시아 여러 국민들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여 다같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원대한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지역의 모든 분야의 인문학자들과 합심하여 일단 큰 목표를 공유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 인문학 중에서도 특히 동양학 쪽의 분발이 요청된다고 보며, 동양학의 열띤 자기 혁신과 주제 개발을 기반으로 할 때에 서양학 쪽도 자연히 자극과 고무를 받아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 우선, 한자문화권의 핵심국인 중국, 한국, 일본의 인문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3국의 인문학자들이 보다 긴밀한 학문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 단계로서 한자라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심분 활용할 수 있는 3국 공동의 연구체제와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인류 비극의 '유적지'인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선포하게 하고, 여기에서 '세계 청소년 평화 캠프장' 등 각종 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을 설치, 여러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미래와 인류 평화를 위해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화합과 협력은 곧 미래의 우호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유적지에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고 국제 청소년 교류에 뜻을 같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인문학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쟁 대신에 공존과 상생, 전쟁 대신에 평화와 협력, 파괴적 소비 대신에 환경과 생명의 보호를 중시하는 일대 국제문화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우리 한국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실천적 과정에서 인문학이 자연스럽게 진흥되고 침체해 있던 인문학 각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인문정책 관계자 여러분께서 저의 이런 소박한 생각을 잠시나마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Zusammenfassung>

Hinweise für die Förderung der Humanwissenschaften in Korea

Sam-Hua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Dieser Beitrag ist ursprünglich verfasst als Referat für das erste „Koreanisch-Japanische Forum für die Förderung der Humanwissenschaften“, das als gemeinsame Veranstaltung von dem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 dem „Komitee der Förderung der Human- und Sozialwissenschaften“ des Japanischen Erziehungs- und Wissenschaftsministeriums am 3. Dezember 2004 im New Otany Hotel in Tokyo, Japan stattfand.

Als Mitglied des „Komitees der Förderung der Humanwissenschaften“, das als ein Provisorium dem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tergeordnet ist, wurde der Verfasser darum gebeten, als ein Mitglied der 9-köpfigen koreanischen Delegation nach Tokyo zu reisen und ein Referat zu halten, das zusammen mit einem anderen der japanischen Seite zur Diskussion über die Möglichkeit der Kooperation der Human- und Sozialwissenschaftler beider Länder anregen sollte.

Da es unter anderem ein sehr diplomatisches Referat von großer Bedeutung sein sollte, mußte ich meine eigene Position als koreanisches Germanisten einigermaßen unterdrücken, indem ich das gemeinsame Kulturerbe von drei nordostasiatischen Ländern, China, Korea und Japan, z. B. das sehr ähnliche philosophische Gedankengut, das mit gleichen Altchinesischen Zeichen geschrieben ist, als wichtigen Ausgangspunkt der koreanisch-japanischen Verständigung und Zusammenarbeit im

kommenden Zeitalter betonte und eine Nordostasiatische bzw. Ostasiatische Kulturgemeinschaft als eine asiatische Zukunftsvision in Aussicht stellte.

Es ist dies also ein Beitrag, der dem ersten Anschein nach mit der „Zeitschrift für deutschsprachige Kultur und Literaturen“ nichts zu tun hat. Ohne Germanistik-Studium und -Forschung hätte der Verfasser jedoch nicht gewusst, über die unglückliche Geschichte von Korea und Japan hinweg überhaupt solchen Gedanken, wie er hier herauszulesen ist, zu machen und ihn als Meinung eines koreanischen Humanwissenschaftlers auf einem interantionalen Forum zum öffentlichen Ausdruck zu bringen.

주제어: 한국 인문학, 인문 정책, 동아시아 협력

Schlüsselbegriffe: Humanwissenschaften in Korea, Förderung der
Humanwissenschaften, ostasiatische Zusammenarbeit

필자 E-Mail: samhahn@snu.ac.kr (안삼환)

투고일: 2004. 10. 20, 심사일: 2004. 11. 10, 심사완료일: 2004. 11. 25.